두번째 3주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

박 영숙 본재단 이사장

지난 12월 6일 한국여성재단은 창립 3주년을 자축하는 모임을 가진바 있다. 여성을 위한 유일한 공익재단으로서 어려웠던 시작의 첫 3년을 보내고 이제 힘찬 도약의 두번째 3년의 돛을 올린 것이다.

한국여성재단은 우리나라의 여성단체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문제 해결을 모아진 힘으로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재단의 기능은 한마디로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이 평등하게 우뚝서는 세상을 만드는 길을 가깝게 하여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려는 것이다. 밟을 적이 가며 또 가야 하는 불편을 부분적으로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재단의 기본적인 기능은 기금을 조성하는 일, 얻어진 수익금을 평등한 세상을 위하는 일에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배분하는 일,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투명하고도 명예로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재단에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추가해서 여성단체들이 스스로 재정문제 해결을 하는데 힘이 되고저 모금활동을 위한 지침서를 출판하고 모금담당가들의 전문성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재단의 또하나의 기능을 보탠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의 100여개 여성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10여억원 규모로 지원할수 있었던 것은 10만여명의 참여로 이루어낸 73억원기금의 수익금과 지정기탁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단이 꿈꾸고 있는 평등한 세상 만들기는 아낌없이 가진것을 쪼개어 주는 따뜻한 기부자들과 헌신적인 단체의 활동가들의 공동작업으로 성취할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들간의 가교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2002년도 마지막 이사회에서 새로 맞이하는 두번째의 3년간의 재단운영을 준비단계에서 본격적인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을 크게 하는 한편 실무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첫째로 지난 3년간의 재단추진기구로서 활동을 하여온 재단추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위원들의 선택에 따라 대부분은 모금분과위원회로 일부는 재정운영위원회, 배분분과위원회, 홍보기획분과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둘째로 실무진의 위상강화와 인력증원이다. 실무책임자를 총장제로 그리고 전문인력으로 팀장직을 보하므로 확충된 재단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한다. 셋째로 전문적이며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기획연구활동을 활성화 하여 재단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게 하기로 한것이다.

2003년은 국가적으로도 뜻깊은 전환의 시기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어 의미있다.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다. 여성재단으로서도 새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 그것은 공익재단 육성법 제정과 세제 개혁이다.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다하고 있는 공익활동을 위한 재단들과 관련된 세제개선이 필요하다.

재단은 두번째 3주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illegible]
[illegible]